

역사지리적 지식과 픽션 소설에서의 장소를 통한 이야기 구성

이현균(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leehyungoon@hanmail.net)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소설, 이야기는 장소를 무대로 구성되는데 역사 소설의 장소는 역사지리적 지식과 연관된다.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지리지, 고지도에 등장하는 장소가 역사소설의 무대가 되며 허구적 사실(faction)을 통한 이야기의 구성은 역사지리적 연구 대상인 옛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역사소설 「열녀문의 비밀」을 사례로 역사지리적 지식이 소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료로는 1:25,000 지형도 마지(馬智),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동지도, 한국지명총람 등을 활용하였으며 소설에서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과 옛 군현의 장소가 가지는 함의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픽션소설에서의 장소와 지리학적 관점의 장소 연구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적성현을 역사지리적으로 재현하였으며 지리지와 고지도에 등장하는 장소와 소설에서의 장소를 비교·대조하고 답사하였다.

2. 「열녀문의 비밀」의 시공간적 배경

소설 「열녀문의 비밀」은 조선후기 정조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선후기 정조대는 북학파 서학(천주교)이 조선에 유입되고 백담파라고 지칭되는 지식인 그룹이 형성된 시기이다. 적성현감으로 임명된 이덕무는 서얼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일하다 현실적 행정경험 필요의 요구에 의해 현감으로 부임한다. 이 소설에서 주요 쟁점은 조선후기 열녀문 상신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다. 북학, 서학이 도입된 시기에서의 열녀문은 유학적 관점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며 유교를 통해 조선을 재정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연관된다.

「열녀문의 비밀」에서는 한양과 경기의 적성현, 중국의 연경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양의 종로이며 한양의 대은암, 한양에서 적성현으로의 이동로, 적성현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연경 유리창으로 이야기의 무대를 옮겨간다. 한양은 조선시대의 도성으로 조선을 상징하는 도시이며 적성은 한양과 인접한 경기도의 군현으로 현재의 파주에 포함된 지역이다. 한양과 인접한 지역인 경기도를 통해 조선사회를 반추하게 되고 연경의 등장은 북학파에 의한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화를 암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3. 옛 군현의 공간구성과 소설에서의 장소

적성현은 감악산과 임진강을 끼고 형성된 지역으로 칠중성, 두지개, 신진나루 등이 주요한 지점이 된다. 해동지도에 등장하는 적성현의 모습은 위로 감악산이 배치되고 아래로 두지강이 그려졌는데 남쪽을 위로 해서 그렸다. 감악산에는 제단(祭壇)이 표시되었고, 임진강과 관련하여 두지강, 신진강, 부연진이 표시되었다. 적성 읍치는 감악산에서 자작현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의해 둘러싸여졌으며 오른쪽에 아현, 성황단, 왼쪽에 여단, 아래쪽에 사직(社稷), 향교(鄕校)가 그려졌다. 중심부에는 아사(衙舍), 질청(作廳), 사창(司倉), 연무청(鍊武廳)이 표시되었다. 적성읍치 중심부를 지나는 도로는 상수역(湘水驛)에서 설마치(雪馬峙), 아현(阿峴)을 통해 연결되는 도로이며 임진강(두지강, 신진강)을 통한 수운이 적성의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동선(動線)은 지리지, 고지도에 근거한 역사지리적 지식, 적성 읍치의 공간구성과 관련된다. 등장인물의 동선은 크게 적성현의 내부지역, 감악산과 두지강을 포함하는 적성 주변부, 대은암동, 백담 아래, 종로 옥의전을 포함하는 한양, 중국 연경의 유리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성 구읍 옛 읍치를 중심으로 한국지명총람(1986)에 등장하는 적성의 옛 지명과 건물의 상대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읍의 동북쪽에 있는 마을인 관골(관동)의 동쪽에 객사(중성관)가 있었으며 옛 읍치인 구읍의 서남쪽에 향교가 있었고 구읍 동쪽에 숙혜당(적성관아)가 있었으며 적성 관아의 서남쪽에 적성 군관청이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구읍 서쪽 향교의 서쪽에 중성산(칠중성)이 위치하며 여단은 구읍의 북쪽 800m 지점에 위치하였다. 사직단은 구읍 서쪽 약 400m 지점에 해당하며 향교골 서쪽에 사창(社倉)이 있었다. 사직단의 남쪽에는 무청(武廳 군기고)가 있었던 구조로 기록되었다.

4. 갈등의 유발 요소로서의 장소

동일한 장소를 답사하더라도 소설가가 바라본 장소와 지리학자에 있어서의 장소는 다른 의미로 작용하게 되고 답사의 결과물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소설가에는 문학의 언어로, 소설의 형태로 공간이 재현되며 지리학자에게는 지역연구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하는 픽션 소설과 역사지리학은 그 시대적 배경과 장소를 공통분모로 하기 때문에 접점을 가지게 된다.

특정 장소 위에서 주인공과 등장인물은 그 장소의 속성에 맞는 행위 역할이 규정되며 소설에서의 장소는 갈등을 유발하는 지점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객사와 향청, 즉 중앙권력의 대리자로서의 객사와 지방 향촌권력의 대리지점으로 향청을 상징하고 사건의 조사와 주도권을 장소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의금부 도사?조정에서 파견된 관리와 지방 향반의 대립은 장소의 두 축 - 객사와 향청 - 에 근거해 제시되고 있다.